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차관 조용범입니다.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에서
올해 상반기 3.8%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금년 2분기 명목 GDP는 26.4% 성장하여
47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적극재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재정이 성장을 이끌자 세수가 늘었고,
그 세수가 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AI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는 국면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우리나라는 산업의 판이 바뀔 때마다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조업의 시대에서는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 조선 ·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인터넷의 시대에는 초고속통신망에 과감히 투자해 IT 강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변화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여는 세상에 발을 내딛는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7년 예산안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2027년 예산안은 네 가지 측면에서 역대급입니다.

첫째, 역대급 규모입니다. 총지출을 12.8% 늘린 820조 9천억원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위한 담대한 투자를 담았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포스트 반도체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성장 과실이 전 세대 · 지역 ·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의 성장단계별로 빈틈없이 지원하고,
지역 · 소상공인 · 취약계층 등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역대급 신규사업입니다.
전년 사업비를 토대로 증액하는
점증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국민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맞이지원금,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등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신규 사업이 탄생했습니다.

셋째, 역대급 혁신적 · 효율적 예산입니다.
특정 목적과 분야에만 지출해오던 칸막이 재원이
국정과제 이행에 꼭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4개 기금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역점 투자가 필요한 7개 분야에
새로운 특별회계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107조원 규모의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였습니다.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6년 51.6%에서
3.3%p 낮아진 48.3%입니다.
경제성장 전인과 재정건전성 제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또 다른 주제인 미래대응기금은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입니다.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투자의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기 위해서는
설계가 정교해야 하고, 운용이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합니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기탄없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제도를 다듬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깊이 있는 논의가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